

# 오성전자산업(주)



## 부품전문생산업체



- 대표 : 유병화
- 주소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공단 3다 716  
TEL : 0345)499-2105  
FAX : 0345)499-2110
- 주요생산품목 : Transformer, Coil(IFT.Choke width)  
D.Y coil

###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 총 매출의 70%이상 수출해

오성전자산업(주)는 1976년 6월에 설립되어 트랜스 포머, 코일, DY를 생산하고 있는 부품 전문 생산업체로서 총 매출의 70%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70년대에는 내수 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 구조를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동남아 등 세계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여 87년 50만불, 91년 1,000만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 공장 건설을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91년에는 청도에 공장을 설립하여 중국 진출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으며 97년에는 21C 미주 지역의 NAFTA에 대비하여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품질보증체제 심화를 위하여 97년에는 ISO인증을 받았으며 해외 주요 거래선인 도시바로부터 우수품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 연구개발분야의 강화를 위하여 98년 부설 연구소 설립인가와 함께 내부 조직도 신상품 분야 전담팀을 운영하여 신시장 개척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 동안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99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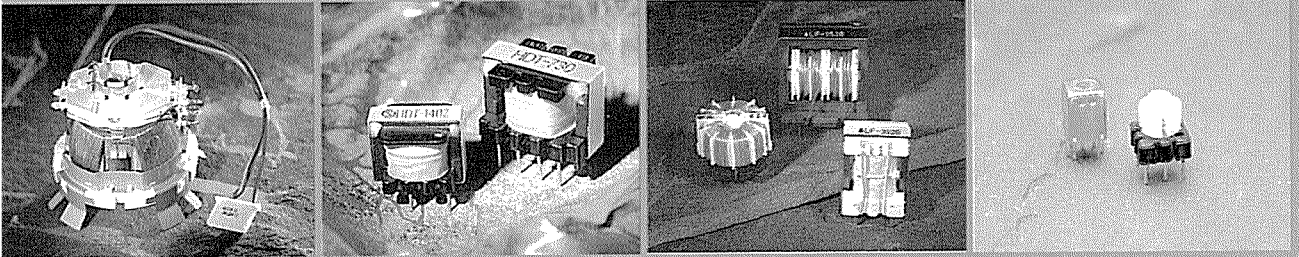
올해에는 특히 신제품 개발, 품질혁신, 수출시장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제품 분야에 있어서는 기존 14인치 TV용 DY중심으로 20인치 DY개발을 완료하여 양산 단계에 있으며 소형화 제품에 필수적인 SMD 부품의 개발도 진행하여 SMD Transformer를 9월부터 양산한다. 품질 혁신을 위하여 100PPM 관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ISO 사후 심사와 함께 내부 품질 감사제를 통한 내실 있는 품질관리 활동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외부 협력 업체의 공정 진단 및 지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출 시장을 위해서는 현지 공장이 있는 중국 및 멕시코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

NAFTA에 대응하여 현지 공장의 생산성 향상 및 신규 바이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9년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오성전자산업은 기존 주력 품목인 트랜스포머, 코일류의 생산과



동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지 직거래를 10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홍콩전자쇼에도 참가하여 주변 지역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주 지역의 경우 2001년 본격 가동되는

함께 20인치 DY 및 SMD 부품 등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중국 및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21C 글로벌 종합 부품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